

보다 나은 산업안전을 위한 한걸음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바로 알기’ 세미나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리자들을 위해 집약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바로알기’ 세미나 역시 이러한 협회의 노력 중 하나이다. 산업법 전부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남겨둔 만큼, 세미나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참가자의 열기로 뜨거웠다.

글 이용국 사진 김지원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졌던 산업 안전보건법(이하 안전법)이 오랜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개정되는 산안법을 크게 나눠보면 '보호대상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이다.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춰 개정되었다. 이렇게 전면 개정을 단행한 이유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 하지만 많은 내용이 바뀌다 보니 사업주와 노동자가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협회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교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협회 대전충남북 지역본부 교육사업팀을 맡고 있는 류명단 팀장은 이러한

협회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협회는 지난 56년 간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경력과 필요에 따라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공감을 아끼지 않았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협회 윤석헌 노무사(차장)는 산업재해 및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사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소 딱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와 판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상식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1



2



3

- 1 ____ 사회를 맡은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임선숙 선임과장
- 2 ____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김홍갑 본부장
- 3 ____ 첫 번째 강사로 나선 협회 윤석헌 노무사(차장)

산업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일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재활보 상1부 박연기 차장이 최근 급변하는 산업재해 발생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참가자가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2018년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한다

는 것이 골자였다. 산업환경과 국민 인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재 인정 범위 역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맞닥뜨렸던 생생한 사례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전달해 참가자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박연기 차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퇴근 시간을 잘 기록해두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언급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4



5



6



7

- 4__ 협회의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교육사업팀 류명단 팀장
- 5__ 로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 전시됐다.
- 6·7__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각 사업장의 담당자들
- 8__ 직접 담당할 사례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전달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박연기 차장
- 9·10__ 다양한 사업장에서 참가한 만큼,
질문 역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다채로웠다.
- 11__ 마지막 강사로 나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상훈 팀장



8



9



10



11

마지막 강사로 나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서상훈 팀장은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관해 설명하였다. 서상훈 팀장은 “매일 김용균 청년이 겪은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3건 이상 일어난다. 산업재해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험으로 이익을 얻는 자(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며, 산안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감과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의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더욱 안전하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모든 국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회의 노력과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